

교회목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11:40)

순례자

발행인: 이 종 윤
편집인: 나 희 주
편집주간: 원 필 현
발행처: 서울 장로 교회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 화: 517-7651~5
F A X: 512-1225

93년도 교회 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맥추감사절메시지 •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셨나이다.

이 중 윤 목사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구미에 맞는 음식을 골라먹는 편식가처럼 자기 비위에 맞는 것만 감사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원래 빈 손으로 세상에 온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대개 불평은 소유가 없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가 남보다 적다는데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나는 받을만한 자격이 없지만 때를따라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43년전 6.25동란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역경을 무엇으로 형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의 이 땅엔 풍요와 자유와 평안이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설 수 있을까.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난 여자가 없는 죄인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자. 대개 사람들은 특대를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기가 천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 자신의 공로와 희생의 댓가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것은 큰 착각이다.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사형 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삼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심을 생각하면 감지득지 할 뿐이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셨나이다.”(시 116:7)라고 고백한 다윗의 노

래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날마다 불러야 할 것이다.

세상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의 것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사를 불안해 하거나 원망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큰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크게 감사하자. 아름다운 가정과 은혜스러운 교회와 평안한 나라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심을 감사하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에 동참케 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자. 올해에도 밭과 보리 추수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 위에 너그럽게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하자.

“비록 무회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합 3:17-19)

제2회 여름 수련회 “계획”확정

우리교회는 제2회 전가족 여름 수련회가 2는 7월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삼척산업대학에서 개최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수련회에 총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세계 공동체”로 정해졌으며 이에 따라 주제성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주제찬송은 495장(내 영혼이 은총입어), 표어에는 “사명받은 가정, 은혜로운 교회, 의(義)의 나라를 이루자.” 그리고 서울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지킬 행동강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①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②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③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④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굽히자.”(벤전 4장-5장)로 확정되었다.

당회는 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효과적이고 즐거운 가족수련회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으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어느 독자에게 의해 우리교회 수련회 운송 차량 전체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준비위원들은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복을 주신다고 기뻐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1일(금) 권상석, 김재호 목사의 이용선, 박철훈, 오정수 장로 최중시, 서문석, 허찬우 집사등은 강원도 삼척산업대학과 자매부대를 방문 답사하였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우리교회는 이번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뜻있게 보내게 된다.

은 성도는 I, II, III부 예배시 성찬예식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게 된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되는데 주의 이름의 영광과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을 감당하기 위한 은 성도의 최선의 마음이 응집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녁 찬양예배 시간을 통하여는 유년부·초등부 어린이들의 찬양이 감사의 분위기를 충만하게 한다.

요한복음강해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 21:16-17)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종 윤 목사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나를 따라 오너라”. 둘째 “나를 믿으라”. 세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입니다.

부름을 받기도 하고 믿기도 했지만 사랑의 단계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제자된 자리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심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됨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이 단계를 넘게 되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을 앞에 세워 놓고 너희들은 나를 다시 배신하겠느냐? 내가 메시야임을 알고 따라오겠느냐? 이런 다짐의 말씀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세차레에 걸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과거지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장례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당신을 지금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정말로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왜 시몬이라 부르셨는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요 1:42).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더이상 베드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만한 반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지금 자연인 시몬으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셨고 다시 신앙적으로 돌아와 하나님앞에 설 때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은 옛사람의 때를 완전히 벗어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예수님이 세번씩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이 말씀은 처음 두 번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나는 당신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인간적인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번째는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께서 세번째 질문에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대답은 여전히 반복해서 필리아의 사랑인 것입니다.

2. 베드로의 응답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더 이상 맹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신다고만 말합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롬 5:8)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악함도 좋은 점도 이미 알고 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 자기 일을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3. 사명을 받는 베드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내 악함도 아시고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은 사랑의 심정도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1) 내 어린양을 먹이라.

어린양은 사랑으로 먹여야 됩니다. 목자에 의해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양은 주님의 어린양입니다. 주님의 양임을 알아서 사랑으로 돌볼 것을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 어디 있는지, 추수할 곡식이 어디 있는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어린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지켜라, 돌봐줘라는 말로서 아직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규율도 가르쳐 주고 훈련도 시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규율과 훈련을 잘 받

은 양들이 먹을것 잘 먹을 수 있고 얻을것을 얻을 수 있으니 바로 주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양과 염소를 분별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양들을 다시 우리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합니다.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뺏어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을 양도 적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몇 달째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이 희미해져서 방황하고 있을때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중요한 전도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은 이삭줍기입니다. 목자의 눈을 피해 가버린 이삭들, 떨어진 이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하는 말 속에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고백을 정말로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선교사의 사역과 목사의 사역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주님의 양을 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가 남았는가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한 끼 먹어버리면 영원히 없어질 사르밧 과부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은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이 벧세다 광야의 군중들에게 먹일 음식을 사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하고 고개를 가우뚱 거릴 때 담대히 바쳐진 이름 없는 소년의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기적을 모두에게 보게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성전 짓기를 소원하는 우리는 지금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기도를 하고 있다. 보름간의 새벽기도, 밤을 맞으며 흘린 눈물.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우리의 끝없는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며 또 원하신다.

성전 건축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성군 다윗은 성전 짓기를 그토록 소원했으나 그 축복만큼은 누리지 못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지어질 성전 그것은 분명 축복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활을 바라며 그의 영광을 볼 뿐이다.

과부의 헌금 두 렵돈은 한 렵돈 보다 많아서 주님의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남은 것이 없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김 찬 진 집사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님. 그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5번째 홍해작전을 통하여 또 다시 영적 중생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눈물 흘리며 뿌린 씨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성전 건축을 소망하면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바치오면 수년내에 주님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서울교회에 주신 비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사오니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모세는 마른 막대기인 지팡이 밖에 없었지만 주님께 바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저희 서울교회도 이 시대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 바치고 순종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능력 행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자원하는 심정으로 인하여 예물을 바치므로 쓰기에 남음이 있어 모세가 정지시켰던 복을 저희 서울교회에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노방전도하는 마리아 전도회

마리아여전도회 6지회(회장: 유경미집사)가 지난 7월1일 잠실에서 노방 전도를 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회원이 많은 마리아 6지회는 5월 월례회에서 찬양을 통한 노방 전도할 것을 결정하고 즉시 연습에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전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가 쉽지 않았다. 강남전철역과 잠실 롯데월드 앞에서 하려고 했으나 특정 종교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과 소음 공해라는 이유로 각각 거절당한 후 잠시 좌절하기도 했으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꾀박인 것에 생각이 미친 회원들은 기타를 메고 용감하게 장소를 찾다가 결국 잠실의 버스정류장 앞에 자리를 잡았다.

“사실 개인이 노방 전도를 하

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함께 나서고 보니 마음이 담대해지고 무엇보다 찬양에 힘을 얻어 준비해 가지고 간 사탕과 전도지가 모자를 지경이었다”고 한 회원은 말한다.

간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며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고 한참씩 서서 찬양을 듣는 사람이 있을 때 회원 모두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에 그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곤 하였다.

회장 유경미 집사는 월례회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로 고민하여 해야 할 일을 제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 노방 전도를 기해 힘을 얻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한 6지회와 함께 노방 전도를 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같다고 말한다.



감사드리세

겔로티 페리

감사드리세.
향기로운 소망 피어나고
슬픔이 사라짐을
진리의 노래 울려 퍼지고
생명의 말씀 들림을
매일의 일용할 양식
넉넉하게 채워 주심을.

감사드리세.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진리되신 주님께
문을 열어 주시는
은혜로운 자비를,
끝없이 비취 주시는
주님의 생명빛을.

당신을 따라가는 충성된
인생의 머나먼 여정을,
수고스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계획하고
용기있게 행동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세.
내 영혼아 감사드리세.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여.
주께 감사드리세.
삶과 죽음 무엇이든
당신의 것이오니.



순례자칼럼

인생의 최고 목적

고 석 창 집사

오래전 내가 세례문답시 받은 질문이 생각나 소개하고자 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물음에 나는 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한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는 예수믿고 세례받는 절차로만 알고 솔직히 이말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성경말씀을 통하여 그때의 무딘 내 마음이 변하여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수다한 은혜의 선물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자신의 헛된 영광과 불의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때로는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온갖 위선과 자랑으로 자기를 과시하는데 이용되어 심지어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켜 자기목적의 이르기 위하여 집단이기주의를 불러 이르켜 개인과 조직내에서까지 진리를 바로 분별치 못하게 하며 표류시켜버리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바라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늙고, 병들어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 이 모든 헛된 영광과 자랑, 욕망을 함께 갖고 갈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간의 어리석고 부패한 삶에서 벗어나 좀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삶의 뚜렷한 목표(천성)를 향하여 한발씩씩 전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적인 환경에 휩싸여 자칫 가치관의 혼란과 바른 삶의 목적의식을 망각하고 자기중심적 삶에 머무를 때가 있다. 신앙따로, 생활따로의 신행(信行)이 불일치한 삶을 자신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체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지난 '93 흥해작전 새벽 기도회는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성훈련이었다. 새벽마다 우리는 시편 79편 9절의 말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를 외치며 하나님앞에 각자의 신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7대 기도문을 중심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를 자신의 갱신을 통하여 우리주변의 모든 분야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굳게 다짐한바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수한 은혜와 복을 한낱 자신만의 헛된 영광과 자랑 그리고 안락을 위해서만 투자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어둠의 때가 이르기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촛대를 우리로부터 옮기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로 즉시 수정하여 사심없이 행할때 비로소 우리모두가 간구한 기도소리가 하늘 보좌위에 상달되어 바라는 선한 열매가 하나 하나 맺어지는 기적이 우리눈앞에 나타나 보이시리라 본다.

중등부
총동원 전도 실시

중등부는 7월 세계 주일(18 학생출석 250명을 목표로 하고 일)에 총동원 전도를 실시키로 하고, 「와 보라! 나도 빌립처럼」이란 주제하에 전 교사와 학생들이 전도 학생을 선발 호칭하여 전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번을 계기로 중등부에서는 이다.

교구별 연합모임

교구별 연합모임이 지난 7월 2일로 전반기 모임을 은혜스럽게 마쳤다.

지난 7월 1일(목)에는 9, 10교구, 7월 2일(금)에는 5, 6교구가 연합교구로 모였다.

이제 우리교회는 매주 금요일에 개별 다락방은 모임을 갖지만 연합 다락방 모임은 8월말까지 쉬게된다.

사랑부 사도신경 암송대회 가제

사랑부(부장 : 윤봉준 집사)는 하여 마지막 “아멘”에 이르기까지 지난 주일(6월 27일) 사도신경 지 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 암송대회를 가졌다.

비록 신체적 장애가 있어 어떤 학생들의 열정적 신앙고백의 학생들은 말하는 것조차 어렵지 모습과 선생님들의 보람의 눈물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열심히 연 은 주님사랑에 대한 진한 사랑을 습한 결과 “전능하사...”를 시작 표현했다.

교회 건축 아이디어 공모

우리 교회는 주의 이름을 영광 뜻으로 교회는 성전건축 아이디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기로 어를 다음 요령으로 공모한다.

1. 마감일시 : 1993년 7월말
2. 규 격 : 자유
3. 제 출 처 : 교회 사무국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바쳤는가?

☞...아! 벌써 7월이 왔구나
...6월은 어디로...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복음의 사명을 위한 새 예배당을 주소서
2.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열린 마음을 주소서
3. 맥추절을 통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 예배안내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오전 9 : 00
	II 오전 11 : 00
	III 오후 2 : 00
찬 양 예배	오후 5 : 00
수 요 예배	I 오전 11 : 00
	II 오후 7 : 00
금요기도회	오후 12 : 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 : 30

■ 교회약도

